

입상 및 보건분야 감독 기능에 관한 세미나

대 : 1970년 6월 19일~6월 20일
장소 : 광주관광호텔

대한간호협회 전남지부장
김 욱 실

오랫동안 침체상태에 있는것만 같은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배우게 하고 배우고저 하는 의욕을 줄 수 있는 세미나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이 일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미나 개최에 앞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려운 일이 재정적인 문제였다. 본 지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겨우 2만여원에 불과하였다. 아무리 예산을 줄이고 줄여도 5만여원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 지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몇몇 기관의 협조를 얻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보았다.

그 중 가장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던 기관은 이고장 최대의 부수를 발행하고 있는 전남일보사였다. 서울로부터 모실 두 강사를 위해 광주관광호텔에서의 2박 3일의 숙식제공과 동 호텔 8층홀을 이틀간의 세미나를 위해 제공할것과 시민에게 nursing profession을 소개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해 줄것과 끝으로 우리의 도입을 위한 보도를 협력해 줄것 등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그외 대한간호협회중앙회, 도의약과, 전남의대 부속병원, 광주기독병원, 전남의대 간호학교, 수피아 간호학교, 기타 의료기관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 당초 계획에 없었던 회원들의 중식제공도 가능하였다. 세미나를 마치고 주판을 놓아보니 8만여원의 결산이었다. 그 밖에도 기념품등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기관도 여러곳 있었다. 그외 도 교육위원회는 양호교사의 동원에 그리고 세 방송국은 보도등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본래 우리 이사들은 60~70명 정도의 참가인원을 예상했으나 세미나 당일 보니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회원들이 몰려와 무려 120여명이 되어 준비된 부족한 기념품, tea 등을 보충하느라고 담당이사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강사도 모신 분은 입상간호분야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장 이영복교수, 보건간호분야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경식교수였다. 현실적이고도 진지한 발표내용에 열중한 회원들은 예정된 시간관계로 제한된 질문과 대화의 시간을 몹시 아쉬워 하였다. 그래서 한번은 모 기관장의 만찬초대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연달아 계속되는 회원들의 질문공세에 몰래 자리를 빠져나온 일도 있었다.

시민을 위한 시민강좌도 예상외로 매성황을 이루어 커다란 관광호텔의 2·3층홀의 전좌석을 300여명이 메웠었다. 시민강좌에서는 전남일보사장 김남중씨의 치사도 있었다. 특별한 호의였다.

세미나를 끝낸 마지막날 저녁 우리 이사들과 초청강사가 자리를 같이 하였을 때 성공리에 소기의 뜻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위한 여러분의 만민의 미소를 보고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 회원들에 준 성과도 컸거니와 사회일반에게 우리 간호계를 재인식시켰다는데 보다 회열을 느낄 수 있었다. 모 신문사 주필의 「간호」가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하였다는 이야기와 또 의과대학 모교수의 의사에게 간호원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어느 subject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는냐는 발표자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번 세미나 성과의 일면을 보는듯 했다.

끝으로 우리의 처음 시도된 모임이 대과없이 마치게 된데 대해 우리를 도와주신 여러기관과 우리지부를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해주신 두 강사님, 그리고 본지부 여러 이사님에게 두터운 고마움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더 알찬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전 회원에게 보고 드립니다. (*)